필라델피아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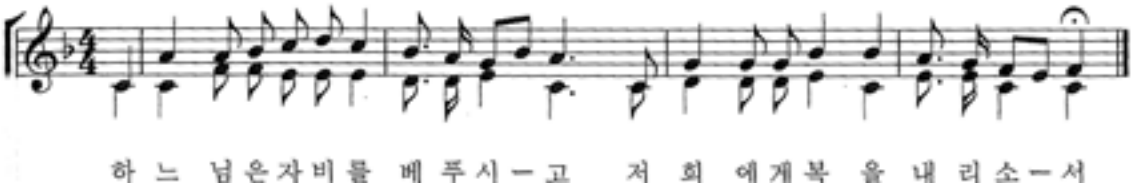
Holy Angels Parish of Archdiocese of Philadelphia
www.philaholyangels.org

7000 Old York Road, Philadelphia, PA 19126 • 사무실 (215) 927-1662 • FAX (215) 224-6615
주임 신부 : 정대웅(요한보스코) • 보좌 신부 : 이중헌(요셉)
사목회장 : 김완수(토마스빌라노바) 267-632-7450 • 연령회장 : 하동한(아오스딩) 267-616-8899

송년 미사

입당 성가 : 249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제 1독서 : 민수기 6,22-27
화 답 송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제 2독서 : 갈라티아서 4,4-7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복 음 : 루카 2,16-21
봉헌성가 : 22 천지 생기기 전
영성체송 :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성체성가 : 500 평화의 하느님
파견성가 : 송구영신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입당 성가 : 254 하늘의 여왕
제 1독서 : 민수기 6,22-27
화 답 송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제 2독서 : 갈라티아서 4,4-7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복 음 : 루카 2,16-21
봉헌성가 : 512 주여 우리는 지금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영성체송 :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성체성가 : 170 자애로운 예수
171 오 거룩한 생명의 샘
파견성가 : 249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미사 지향

송년미사	생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김멜라니아 수녀님	박순자	영명 축일 축하
7시	연	김광배(토마스)	김명주	영원한 안식
		나순금(마리아)	배현주	

7시	생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김창재(요한) 이근실(마리아) 김은혜(크리스티나) 김세현(바오로)	김창재	가정 축복
10시	생	신년 가정축복 기원 합동 미사		

새해에는 주님의 은총이 더욱 가득하시길 ...

지난 한해 홀리 엔젤스 공동체를 위해 힘써주신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과 봉사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더 많은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임 신부 : 정대웅 요한보스코
보좌 신부 : 이중헌 요셉

2018년 제51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요약)

이민과 난민 : 평화를 찾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빕니다! 전 세계 이주민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곳을 찾으려고 그들은 역경과 고난을 견뎌야 하며 울타리와 장벽에 직면합니다. 그 모든 사람을 자비심으로 끌어안읍시다. 올바로 이해된 공동선을 해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규적 통로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다른 방도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향하는 많은 목적지 국가에서는 인간 품위를 깎아내리는 과장된 외침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을 관상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용기와 재능과 에너지와 열망, 그리고 고유문화라는 보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받아들여준 나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또한 이 관상하는 시선이 공공의 선익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식별을 이끌고, 환대의 정책을 추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평화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려면 네 가지 행동, 곧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그리고 통합하기를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환대하기'는 국가에 합법적으로 들어가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몰아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하기'는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착취당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증진하기'는 온전한 인간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통합하기'는 자신들을 환대하는 사회의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여럿이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이민들과 난민들의 공헌을 평가할 줄 안다면 인류는 모든 이의 가정이 되고 이 지구는 참으로 '공동의 집'이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카 하비에르 카브리니 성녀를 기억합니다. 이 여성은 이민자들을 섬기는 데 생애를 봉헌하고 그들의 주보성인이 되었습니다. 성녀의 전구로써 다음 말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2018년 신년 메세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북녘의 갈라진 형제들에게도 주님 은총이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모두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나눔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모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곳곳에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일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